

두 은총의 만남

Encontering of Two Kinds of the Grace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 grace and special grace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 화 령

CAMBODIA REFORMED FAITH ISTITUTE (CRFI)

목차

제 1 장 서론: 이 주제의 동기와 목적 제시-

신자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발견된 진리는 일반은총은 특별한은총 안에서의 일련의 조화를 이해할 때 치우침이 없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1) 세가지 방면의 진리

- (1) 건강에 대하여- 영육의 질고를 가진 자가
취할 성경적 태도 - 치료를 위한 바른 태도
- (2) 재물에 대한 취할 성경적태도 - 중용
- (3) 사람 관계에 취할 성경적 태도 - 사랑
= 서술방향제시

제 2 장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에 대한 규정

- A. 일반은총의 정의
- B. 특별한은총의 정의
- C.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의 정의

제 3 장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 이해의 역사적 고찰

- A. 구약 - 에덴동산과 자연만물 그리고 아담부부/
창세기와 출애굽기/ 욥기와 시편
- B. 신약 - 그리스도안의 두 은총의 조화/ 요 14-16 장
고별설교/ 요한삼서
- C. 교부들의 이해 - 터툴리안과 알렉산더 클레멘트
- D. 중세시대의 이해 - 로만의 이해
- E. 개혁자들과 퓨리탄의 이해
- F. 진화론자의 이해/ 동양의학에서의 일반은총
- G. 현대과학의 이해 - 흑사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제 4 장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의 실상인 하나님의 형상회복

- A.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삶
- B. 두 은총의 만남의 오해가 가져온 생활
- C. 두 은총을 누리는 길

제 5 장 결론: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의 무대이다.

참고서

칼빈의 기독교강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바빙의 교의학 2 권

박윤선의 성경신학

동양의학

하나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성경적 언약의 이해

제 1 장 서론

1) 동기:

필자가 이 책을 쓰는 동기는 내 생애에 한 위기로 영구적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던 때에 가진 생각이다. 2004 년,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나는 생애의 큰 위기를 당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도 싫은 사건이었다. 잠깐이면 병원 입원을 하고 쉽게 해결되리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건방진 태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고 정상으로 돌아가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던 때가 벌써 15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일로 나는 왼쪽이 마비된 반신불수 곧, 중풍병자가 되었다. 이대로 가 다 또 다른 위기가 오면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 저 세상 사람이 되든지 하는 위기 감을 가지면서 여러날 메디칼 치료 받으면서 계속적인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되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면으로는 그동안 소홀히 여긴 일반은총의 소중성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등한히 여긴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소홀함에 후회를 하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에 넣으셨는지 모르겠다는 질문과 원망으로 점철되었어도 현실은 현실이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라는 생각에, 일반은총의 회복을 찾아 나서면서 그동안 나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초자연적 역사인 기적과 능력을 믿는 나는 신유의 은혜를 얻기위해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받아보았으나 이렇다할 만한 기적적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더 나은 치료를

하려고 백방으로 생각하고 취한 것이 일반은총의 도움이었지만 그 한계성을 보았으며 그 과정에 나는 두 은총 곧,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에 관한 신자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에 관해 집중하게 되었다. 그 중 나는 세가지 방면에 포착되는 이슈를 통하여 그 귀한 진리를 생각한다.

첫째, 건강에 관하여- 영육의 질고를 가진 자가 취할 성경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질고는 단지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가? 질고는 대다수가 죄가 원 인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도구로 설명하 기도 한다. 그 때 우리는 일반은총을 무시하고 특별은총에만 매달리려는 자리로 쉽게 나가 현재의 질고를 영적으로 제한시킨다. 이것은 몸의 학대 내지 자학 행 위로 나타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도리어 우리 는 일반은총을 통하여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겸손히 현재의 질고를 인정하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에지만 도리어 그 일을 통해 특별은총을 구하는 것으로 나감으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아사가 발병이 생겼을 때 의원을 찾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보 다 더 우선할때 하나님은 그를 대려가셨다. 이것은 일반은총을 다스리시는 하 나님의 주권을 등한히 여길 때 일어난 결과이지, 이 둘의 조화를 무시하라는 것 이 아니다.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 때 필자는 특별은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곧 고쳐주시 리라 믿고 현실의 난관을 그대로 받으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도 고쳐지기는 커녕 그냥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나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 덕에 생각지도 못한 미주에서 유명하다는 동양의학을 가르치는 사우스 베일로 한의과 대학에 입학하여 1년 6개월을 공부하면서 나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가지 지식을 얻었다. 그 때 나는 일반은총의 세계의 광대함을 알고 그 기 이함에 놀라게 되었다.

그 때 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철학적 기초가 성경이 아니고 극단적 인본주의 인 진화론에 뿌리를 둔 것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결국 엉겁결에 낯선 의과대학 에 진학한 셈이다. 나는 일연의 전통적인 체계를 가진 동양의학의 세계를 접하 면서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대답은 동양의학 역시, 일반 은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규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자연질서에 충실하려고 하는 일이나 풀 한 포기라도 귀하게 여겨 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에 사용하는 경험의학으로 서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침 치료로 나의 고통과 혈압을 조절 하고 뜸으로 나의 몸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 그 고마움을 느끼며 지금도 그 은총을 누린다. 건강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 생각하니 한 걸음 더

나아 가 나는 일반은총의 복을 선교 현장에 나눌 욕심이 은근히 찾아왔다.

둘째로, 재물에 관해 신자가 취할 성경적 태도를 알게되었다. 이런 고난의 수렁은 돈에 관한 것도 항상 그러했다. 아내는 언제나 돈 때문에 한번도 불평하 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감사하며 영적이었고 경건 중심이었다. 한 사람의 간호도 어려운데 둘이나 돌보아야 하니 얼마나 난감했을까?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첫째딸 에스더가 소형 간질이 어릴 때 발생하여 그레마 시저로 변형되어 자주 넘어지는 일이다. 현재는 약으로 거의 통제되나 정신적인 이슈로 발전하여 고생하고 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날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나 혼자 내 병을 내가 치료한다는 목표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캄보디아 선교지로 가게된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그 때 항상 따르는 문제는 돈이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며 일하는 것보다 자신이 나를 돌보면서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 때 처음 취한 조치가 그 동안 항상 잘 다려 입던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그 날 후 나는 15년간 다리미를 거치지 않는 구겨진 양복을 입었다. 이것이 돈을 절약하는 아내의 지혜임을 늦게 알게되었다. 나는 이런 돈 거래도 일반은총의 범주에 속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주는 것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조용히 서서히

적절한 때에 일하셨다. 그래서 큰 일이 생겨도 나는 어메이징하기보다 덤덤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일반은총에 소관된 일이다.

세째로, 사람 관계에 취할 성경적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건강을 위한 치료, 돈에 대한 문제 외에도 바로 사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 많다. 본래 내성적인 필자는 사교적이지 못했는데, 다치고 나니 더욱 큰 장벽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역은 사람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게는 피할 수 없는 큰 장벽이었다. 강단에 오를 때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침을 머리에 박고 시작한다. 이대로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임하기에 언제나 이 사역을 마쳐질까 라는 생각에서 항상 초조했다.

제직회때 별의 별 발언을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며 그 때를 견디는 일이 정 말 막막했다. 그 때 나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이 관계를 좁히기 위하여 말대신 글을 통해 하기로 생각하였고 그 외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 중풍으로 쓰러진 사건 자체가 교회에 영향을 미쳐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10 년간을 사역하고 62 세에 조기은퇴를 하여 캄보디아 사역을 핑계로 떠나게되었다. 사람관계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말도 되지 않은 일로 아픈 목사를 걸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하루속히 이 순간을 벗어나려고 힘썼다.

이미 여러 사람이 고인이 되었지만 지나 놓고보니 그들의 태도가 나의 급한 성격에 더하여 아픈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원만한 관계가 정말 힘든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내 길을 걸어갔다. 여기서도 나는 대인관계가 일반은총에 속하며 특별은총인 하나님과 영적관계를 중심으로 조화있게 움직이는 세계를 알게되었다.

일년 반이란 시간, 한의과 대학에서 인체학 (아노토미) 공부를 통해 우리 인체 의 신비로운 구조와 성격을 배우면서 그 경이로움에 놀라게 되었고 남들은 골치 아픈 과목으로 여기는 것을 도리어 나는 신묘막측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섬세함으로 알고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신비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분야인 것 또한 알게되었다. 본초학을 통해 360 여개 약초의 성격과 효력등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은총에서 나왔음을 알게되었고 성경은 먹으나 마시나라고 할 때 이것을 도구로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곧, 특별 은총과의 조화를 가지라고 늘 설명한다.(고전 10:31)

침에 대한 것도 너무 신비스럽다. 경락이란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데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침치료가 이루어진다. 이것의 효력을 경험한 필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은총의 범주에 또 이것을 넣어 생각하게 되었다. 인 간의 경험을 통해 개발된 동양의 흑암의 세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볼 때 특별

은총만을 고집하는 자의 좁은 사고의 세계로 이것을 부정하고
멀리하는 처사는 비성경적임을 알게되었다. 성경은 이것까지
일반은총에 넣어 생각한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받 아들일 때 인간 지혜를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고 도리어 존중하면서 그 말머리를 성경으
로 끌어오는 것이 성경적이란 생각을 하게되었다.

생명도 신비스러우나 죽음도 신비스럽다. 다른 이는 죽음을
태연하게 맞이한다 는데 나는 겁이 많았다. 죽기가 싫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하여 여 방법을 사용하려고 나 자신이 몸에 땀을 뜨고
침을 놓으며 그 효력을 느끼려 했고 너무 불편한 몸이라서 다른
무엇을 하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산 속에서
약초를 키우며 조심 조심 살아 가는 생각도 해보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은총의 자 리로 인도하셔서
본래 목사에게 주신 고유의 부름에 헌신하도록 하셨다. 이런
은총을 주신 주님께 나는 전적으로 나를 바쳐 주를 기쁘시게하려는
마음뿐이다.

설상가상, 가정에 첫째 딸이 간질로 경련을 하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으 로 정신적 혼란을 당하는 고통을 보고 혹시나
치료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온갖 약을 먹고 치료하기 위하여 거기에
온 가족이 전념하였지만 그의 정신적인 고통 을 접하는 것을 본
어두운 밤에 나는 정신계 역시 일반은총에 포함됨을 알게되 었다.

그렇게 구한 반짝이는 기적은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서서히 자신의 손을 캄보디아에서의 선교현장에 다른 일로 나타 내기를 기뻐하셨다.

일반은총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데도 우리는 특별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최악시 여긴 것이 사실이다. 이 두 은총의 관계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할까? 그래서 필자는 두 은총을 역사 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피고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제 2 장 두 은총의 정의와 그들의 연합에 관한 정의

- 일반은총의 정의
- 특별은총의 정의
-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에 관한 정의

모든 일의 바른 지식과 이해는 각 주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본 장은 성경적 정의를 생각한다. 두 은총에 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1. 일반은총의 정의

먼저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화란의 헨만 바빙(Herman Bavink)의 설명대로 본래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한 계시라는 명제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창조로 시작된 일반은총은 일반계시와 관련을 가짐은 당연한 것이고 구속을 위해 주어진 특별계시가 특별은총과 관계를 가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은총은 계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계시는 은총의 뿌리이고 근원이다.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능력과 영원한 신성과 그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 각 종류의 은총을 직접 간접적으로 나타내셨다. 이 계시는 자연 만물뿐 아니라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 자체 속에도 그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포함시킨다.

본래 일반 은총은 그 자체가 인간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허락하신 것이다.(롬 1:20-21, 골 1:15-16)
그래서 우리는 일반계시를 관찰 함으로 일반은총의 결론을
창조주와 그의 창조의 목적에 두어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중심의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을 바로 관찰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 즉,
그의 선과 의와 지혜와 신실하심 등을 발견한다. 물론 그 관찰도
특별은총인 성령의 조명을 받은 구속받은 자의 마음에만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시편 19 편의 기자는 이 사실 을 알고
일반은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를 찬양할 뿐
아니 라 특별은총의 포구로 돌아와 그의 마음에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께 열납되 는 제물로 살기를 원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두 은총의 만남을 바로 이해 한 자화상일 것이다.

일반은총에 포함시키는 3 가지 만을 생각해 보자.

첫째, 자연만물 - 일반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첫 선물로
자연만물을 꼽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반계시의 성격을 가지면서 모든 인류의 보존과 통치와 협력을
통해 창조자가 이끄시는 수단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섭리(providence)라고 하는데 일반은총통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이 창조물은 인간에게 맡겨져 관리함으로서 모든 문화사역의 활동무대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부조화를 일으키어 죄악의 영향을 받는 열매를 생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기까지 모든 자연법칙을 그대로 두심으로 자신의 목적인 구속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 (창 8:22)오늘 우리시대에 그 자연의 혜택을 통해 인류의 생존에 유익을 얻는 것은 이 자연언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속에 흐르는 어떤 자연 법칙 또한 일반은총에 포함되기에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은 모두 이 영역에 속하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손길이 영속적이란 말이다.

둘째, 인간본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적인 존재이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성 인 도덕적 기능 곧 양심은 일반은총의 영역에 속한다. 양심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의 기능을 가리킨다. 삼분설에서 말하는 영혼몸의 기능 중 혼적 기능인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과 영적 기능인 영교와 직관과 양 심의 기능이 일반은총과 깊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의 삶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인간은 어렴풋이 창조자를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려는 종 교행위가 일어난다. 이처럼 종교행위는 일반은총과 깊이 결탁되어있다.

세계, 문화사역이 일반은총의 영역이다. 본래 창조물에 대한 관리와 정복으로 인한 문화사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를 가져오도록 경영된 것이다. 죄악으로 시작된 문화로 일반은총이 어두움의 도구로 사용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화사역은 구속적 활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화 사역에는 이 문화사역의 그리스도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 말은 모든 방면에 구속화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일반은총의 영역은 장대하다. 구속 은총과 연결할 때 이것은 복음화의 영역이 되게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특별은총의 정의

일반은총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의 뜻을 보이는 일반 계시를 통한 은혜라면, 특별은총은 구원과 관계된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임하는 은혜 곧, 구속(redemption)을 가리킨다. 죄로 인해 알지 못하던 구원의 길을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등을 실제로 보여주심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가 이것 외에 다른 특별계시를 알지 못하고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딤후 3:16-17) 이것을 특별은총 곧 선택받은 자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제한된 부류 곧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된 독특한 은총이다. 이 구속이 일반은총을 통제하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구속받은 신자는 일반은총을 죄악시하거나 적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도리어 주어진 은총을 감사히 받으며 구속을 통해 만유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려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춘다.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사역(창 1:26-28)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문화를 복음화시키는 사명(막 16:15, 골 1:23 막 13:10, 행 1:8, 롬 8:22)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아이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헌신하고 적극적인 방어와 설명과 공격으로 변증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의 새창조를 이루려고 헌신한다.(마 28:18-20, 고후 5:17, 엡 2:15, 4:24 히 8:13) 그 때 성령은 일하시고 높아지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그 완성된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세계에 들어감으로 모든 사역을 마친다. 그래서 이 두 은총관계를 바로 이해할 때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요사이 우리시대의 여러 흐름에 현실의 유익을 중시하다보니 성경의 특별계시의 절대성을 황홀한 경험이나 기적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경솔한 해석을 함으로서 성경의 유일한

계시성의 절대 권위를 훼손시키고 변질된 계시 관으로 썩은 열매를 맺힌다. 세상이 다 변해도 특별은총의 원천인 특별계시 곧, 성경의 절대성은 변할 수 없고 변질시켜서도 안된다. 이것은 변질된 하나님, 곧 우상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갈등은 두 은총과의 만남 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산물일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은총의 만남 안에 놓인 균형잡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한다.

3. 두 은총의 만남과 조화의 정의

우리의 주제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는 삶을 논할 때 두 은총의 만남과 그 조화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우선이어야한다.

여기 “만남(encountering)” 이란 하나님의 구속 사건(the redemptive event of God)을 가리킨다. 창조로 시작된 일반은총이 죄로 인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심으로 두 은총의 만남의 실상을 처음으로 분명히 보이셨다.(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인간이 타락 하자마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신 회복의 약속을 구약의 오랜기간 상징주의 (symbolism)와 모형주의(typology)로 나타내신 것을 이 모든 날 종말시대에 그 실체를 나타내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다. (히 1:1-2)

특별은총이 혼돈, 공허 그리고 혼란 속에 떨어진 일반은총에 들어와 그것을 통제하고 채우 심으로 일반은총을 통해 그의 뜻을 실현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두 은총의 완전한 만남의 시작이고 기초였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찬양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 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 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 셧느니라” (딤후 3:16)라고 했다.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란 유기적인 연합으로서 분명한 구분을 가지나 하나의 연합 곧 삼위일체의 연합을 닮은 것이다. 전자는 영원한 절대 연합이나 후자는 하나님을 중심한 의존적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조화라는 말은 연합으로 화모니를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일반은총의 무대 위에 활동하는 특별은총은 그 주체가 되어 죽은 일반 은총을 모두 회복시킨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할 때 큰 군대가 된 것이나(겔 37:1-14) 성전에서 시작된 생수가 사해로 흘러들어갈 때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모두 회복된 것 같다.(겔 47:1-12) 이것이 두 은총의 만남으로 오는 조화의 상태이다. 마침내 이것은 모두 두 은총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의 은총으로 성취되는 기이한 사건을 가리킴이다. 한마디로 두 은총이 구속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안에서 융합된 구속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제 3 장 두 은총의 연합에 관한 지식의 역사적 흐름

- A. 구약 - 에덴동산과 자연만물 그리고 아담부부/ 창세기와 출애굽기/ 욥기와 시편
- B. 신약 - 그리스도안의 두 은총의 조화/ 요 14-16 장 고별설교/ 요한삼서
- C. 교부들의 이해 - 터툴리안과 알렉산더 클레멘트
- D. 중세시대의 이해 - 로만의 이해
- E. 개혁자들과 퓨리탄의 이해
- F. 진화론자의 이해/ 동양의학에서의 일반은총
- G. 현대과학의 이해 - 흑사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서론:

성경 신학적으로 이 두 은총은 창조(creation)와 구속(redemption, recreation)의 흐름으로 표현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영광을 친히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롬 1:18-19)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반은 총은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본래의 뜻은 변함이 없었다. 마치 우리의 구원에 율법의 요구가 사라짐이 아니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롬 8:4) 일반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 시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을 구속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연만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사회, 문화 등을 가리키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은총을 누리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 주체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가 들어와 일반은총의 참된 목적에 이르기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특별은총이다. 특별은총은 죄에서의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주어진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리킨다. 그 성경을 믿음으로서 택한 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조명으로 죄인에게 비추어져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하여 그들을 새 세계 곧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의 세계로 이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뤄진 구속의 세계와 그 구속은 일그러진 일반 은총을 새롭게 하여 본래의 위치로 나가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사 (Redemptive history)라고 칭한다.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둘의 구분을 분명히 보며 또한 이 두 은총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조화의 세계를 본다. 다시 말하면 두 은총의 연속성(continuity)과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본다. 일반은총이 근접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의 성격과 확연히 구분되는 불연속성과 그러나 그리스도안에서 이 두 은총의 만남으로 조화를 이루는 연속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곧 옛언약과 새언약 간에 나타난 두 성격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두 은총의 구분이 모호할 때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일어 나고 이 둘의 참된 조화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주의(Sovereignty Lordship), 곧, 두 은총의 조화 속에 하나님의 권위(authority)와 능력(power) 과 임재(presence) 가 융합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게된다. 결국 이 만남으 로 오는 아름다움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바울은 롬 14:17 에 그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설명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구절에서 다시 정리하면, “먹고 마시는 일” 이 일반은총이라면, “성령안에 서 누리는 의, 평강, 희락” 은 특별은총이다. 이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고 일반은총이 특별은총의 통제를 받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누릴 은혜의 내용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이다. 만약 먹고 마시는데 머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즐거움을 구한다면 이것은 또 죄악을 범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은총에 있다하여 일반은총을 경시한다면 여전히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구속은 바로 두 은총의 만남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현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반은총의 도구들 통해 즐기지만, 저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구속으로 조화롭게 완성된 상태를 영원히 누리는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두 은총의 만남의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모습을 상징으로 말하나 피조물과의 연합과 조화를 간과하지 않는다. 두 은총의 세계의 만남의 증거들로 가득 찬 성경은 그 조화의 세계를 오직 창조자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성부와 성령에게 귀속시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다.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피고 교부, 개혁주의, 청교도주의 그리고 현대과학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관찰할 때 그 중요성을 좀 더 바로 알게 될 것이다.

1. 구약의 증거

1)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의 은총의 누림

두 은총의 만남은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후 얼마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경험적으로 나타났다. 죄 경험에 없는 그들은 이 일반은총 만으로도 두 은총의 만남에서 오는 경험 곧,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의 창조된 기능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교제를 누렸다. 에스겔 28:11-16에 두로의 심판을 알리는 비유에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은 죄가 없는 일반은총의 세계에서 임마누엘의 교제로 그
 은총을 누린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불돌 사이를 왕래한 사실을 암시한다.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것을 보면 죄짓기
 전 그들은 얼마동안 두 은총의 연합을 누린 것처럼 보인다. 이
 연합된 은총의 주 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리고 에덴동산을 만드신 것은 일반은총인 자연이 기본은
 아닐지라도 그것에 부응하는 창조였을 것이다. 아담이 누린 은총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총과
 버금가는 것이다.

2) 노아가 누린 두 은총의 만남

홍수시대의 노아와 맺은 언약 곧, 자연 언약에서 우리는 일반은총을 거두지 않으 시고 그대로 두신 것을 보며 특별은총이 그리스도오심과 그리스도 오신후 종말때 까지 계속됨을 본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0-22)”

이것은 두 은총의 만남의 연합을 즐기는 약속이 계속되었고 상징주의 형태이지만 여전히 그 은총을 누림은 택한 백성에게 경험되어진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요나 단 에드워드는 그 시대에 일어난 부흥으로 본다.

3) 족장시대에 보여진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

모세 오경의 첫 두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일반은총과 구속은총의 특성과 내용 그리고 관계를 잘 보여준다. 창세기는 그 자체가 일반은총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구속의 원천인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며 삼위 일체의 천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창조를 행하시고 그 창조 속에 가리워진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중 창세기 1-2 장의 창조의 기록은 구속을 경험한 모세를 통한 성령의 일차 적인 구속 계시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실 사건이지만 그 속에 많은 것이 구속의 상징주의로 나타나 그 실체인 완전한 구속의 그림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빛과 아두움의 구분, 하늘과 땅의 구분 그리고 물에서 땅을 끌어내시는 일이나 그 땅과 물에서 다른 생물과 사람이 살 수 있게하는 일은 구속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주의 (symbolism)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은총과 구속은총은 본래부터 한 초자연적 계시에서 나온 것으로 떨어질 수 없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영광과 그의 뜻을 온 땅에 나타내는 은총의 도구 이다. 그래서 신자는 일반은총의 그림자 속에서 특별은총의 풍성함을 알게되고 또 특별은총의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일반은총의 비침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두어야한다.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아담은 이 두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일반은총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이미 주어진 엄청난 복된 선물인 일반은총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은총을 주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타락 후 최 초로 주어진 특별은총의 요약인 구속계시, 창 3:15 절은 구속을 이루시는 목적과 방법을 비유로 보이기를, 구속은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임을 암시하였고 다른 어떤 협력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이루 심을 분명히 가르치셨고 또한, 여인의 후손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 시며 그 구속은 점진적인 과정을 가짐을 미리 말해준다. 이렇게 자연 만물의 창조를 통해 구속을 설명함으로서 구속을 더 풍성하게 알려준다. 구속의 은혜는 본래부터 일반은총을 배제한 적이 없었다.

원시 복음 속에 보여진 두 은총의 만남은 역사속에 잘 엮어진 옷감처럼 유기적 관계로 절묘하게 그림계시와 설명계시의 연합향태로 점진적 발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그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다.

그래서 이 연합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 해석되고 증거된다. 로마서 8 장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은 그 아들로 인한 구속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아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두 은총의 연합을 누리 는 선택받은 자가 새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온갖 고난 과 고통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자유의지를 충분히 나타낸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하셨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 1 장에는 그 구속 이 어떻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구속의 아이콘이 일반은총과 어떻게 연합되어 자기 백성인 교 회가 어떻게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 모습은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두 은총의 만남의 자화상이다. 구속은총의 열매 인 하나님의 형상인 의, 진리와 거룩의 모습은 일반은총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 형상의 나타남과 융합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사도는 갈라디아 4:4 절에서 언급하기를 “때가 차매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하셨다” 고 함을 창세기 3:15 절의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했고, 그리스도안에 서 구속은총이 일반은총을 연합시켜 본래의 하나님의 경륜을 영원히 드러내심 으로 알아다. 사도요한 역시 바울의 깨달음을 기초로 두 은총의 만남과 연합의 모습으로서 보좌 앞에서 천상의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되어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계 5;)

이 두 은총의 연합된 그림과 달리 마태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유, 달란트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각각의 구별하며 연합된 그림을 그려준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일반은총에 속한 달란트라는 일감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일군의 수고가 주인에게 평가를 받을 때 또다른 일반은총을 상으로 더 하시는 것을 본다. 받은 고유의 달란트인 일반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더하시는 것은 구속은 총과 일반은총의 만남과 연합을 통한 구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요한 역시 요 1:14 절에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은 여인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를 만질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구속의 참 중보자임을 알리면서 그를 믿는 자는 그를 통해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는 완성된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교회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한 전능자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구원의 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화상을 그려주었다.

그 후 요한계시록에 나온 완성된 구속에서 우리는 일반은총과 조화를 이룬 특별 은총을 주제로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종말론적 장면을 사도는 목격하고 감격함을 본다. 이와 같이 두 은총의 만남의 연합과 조화는 구속받은 그의 백성에게 일반은총은 특별 은총의 무대요, 모태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

4) 교부들의 이해

일반적으로 여러 초대 교부들 중 사도적 신학을 따르는 대조되는 두사람, 알렉산더 클라멘트와 터툴리안을 꼽는다. 알렉산더 클라멘트는 성경적 합리주의를 존중하여 “알고 믿어야한다”는 원리를 주장함으로 많은 변증가들의 고전 변증 이론 (classic apologetic theory)의 근거를 제시했다. 두 은총의 만남을 이성주의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터툴리안은 모르니까 무조건 믿는 신앙을 강조한다. 이것은 전제주의 변증론 (preposition apologetic theoly)의 근거를 제공했다.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증이론의 근간이 되는 그의 원리는 한국 교회의 정암 박윤선 역시 그 변증원리를 받아드린 것은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명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터틀리안은 일반은총을 특별은총의 무대내지 모태로 명시한 점은 두 은총의 만남을 사도적 성경적 이해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의 뿌리이고 도구이다. 바꾸어 말하면 특별은총은 일반 은총의 시작이고 목표이고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은 적대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이다.

5) 개혁자들과 퓨리탄들의 이해

그 후 중세를 통해 사도적 성경관을 떠남으로 일반은총을 특별은총과 구분하는 이원론이 발생하여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지 못하다가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 후 성경의 권위가 회복된 개혁자들과 그것을 삶과 교회에 실천적 이케 한 퓨리탄 교회는 초대교회에 가졌던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와 두 은총의 만남에서 조화를 경험하며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 오늘날의 바른 길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퓨리탄의 글에 우리는 자아부인인 주제를 깊이있게 다룬 것을 본다. 존 오웬(John Owen)이나 리처드 백스트(Richard Baxster)는 그것을 목회사역의 주요 주제로 취급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깊이에 놀라게 된다.

이것은 두 은총의 만남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여 생활의 근간으로 삼은 성경 적 자화상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실예이다. 퓨리탄 이후 개혁신학자 중 두드러진 신학자 바빙은 이 두 만남에 충분한 이해를 한 자로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바빙의 개혁주의 교의학 속에서 이것을 정리한다.

일찍이 필자의 스승인 정암 박윤선이 성경신학 시간에 “조직 신학을 공부하려면 바빙을 경유하라” 는 외침을 기억하고 필자는 바빙을 연구 한 바 있고 그의 이해를 좋아한다. 그는 그의 교리학에서 일반은총을 일반계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초대교회시대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구분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경의 하나님의 특별계시 에 근거한다. 큰 신학적 다툼이 이 두 관계의 성격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2) 로마는 개혁자들보다 자연신학에 더 무게를 두었다.

아나뱃티스트의 전통은 자연질서를 거절하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혁명적 모습을 가졌다. 소시니안 역시 자연신학을 거절했고 특별 계시로 부터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주장했다. 루터 역시 영적 영역과 일시적인 영역을 구분한 이원론적 견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나뱃티스트와 소시니 안의 극초자연주의는 자연히 합리주 의로 돌아갔다. 루터주의와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이성이 믿음을 따라 권위를 가진다고 했다. 결국, 확장된 자연신학은 독일 자연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고 영국의 자연신론자들은 계시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반대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영향으로 하나님의 실재를 인정하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찾는 일 로 나아갔다.

(3) 성경은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 창조 계시는 성경 보다 초자연 계시성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둘 속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일하시고 그의 섭리적 창조, 보존, 다스림은 단순한 능력을 가진 하나의 계시를 형성한다. 계시는 타락 전에 이미 있었다. 행위언약은 초자연계시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벌써 초자연주의자이다.

(4) 초자연계시는 직접 계시와 다르다. 모든 계시는 중보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현현, 말씀과 행위로 알리셨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는 항상 모든 사람을 붙든다. 죄는 그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항상 모든 사람을 붙드신다. 그러나 특별계시가 일어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은 일반계시와 초자연 계시와 동일시 할 수 없다. 후자의 기간은 전자의 기간을 앞 설 수 있다.

(5) 기독교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일반계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펠라 기우스는 자연계시의 충족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18 세기 자연주의자와 자 연신론자를 따랐다. 모든 일반계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한 은혜와 영적 지식 없이도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 더욱이 자연 지식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일로 큰 논쟁이 있었다.

(6) 일반계시는 이교도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으로 종교의 기원을 밝히기가 어렵다.

(7) 모든 계시는 마침내 그리스도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성취된다. 성경과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를 더 잘

보이게하는 안경을 제공한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연합한다. 일반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한다. 창조와 구속은 한 종말론적 찬양의 칸타타 안에서 연합되어있다.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고 종교적 생활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잘 엮여져 있다. 마침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의 교의학에서 바빙은 특별은총을 특별계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종교는 일반계시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신적 현현과 말씀이 필요하다. 모든 종교는 세가지 기본 수단을 통해 원형화된다. 첫째, 종교적 신념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다. 모든 종교는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이미지를 가진다. 둘째, 모든 종교에는 신들이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바램이 있다. 셋째, 고난의 때에 신들의 특별한 도움에 관한 신앙이 보편적이다. 모든 종교에 현현, 예언 그리고 기적이 필요하다. 성경적 종교는 그 특성을 다른 종교와 나누지 않는다. (제사, 성전, 제사장들) 그 본질은 다른 것에 비해 특별하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며 메시야는 오직 이스라엘 에게서만 나온다. 성경적 계시가 자주 보인 형태는 신적 임재이다. 그 현현은 하나님의 협력을 전제하거나 신적존재의 발산이 아니다. 이런 현현은 비인격적 임재(바람, 불), 인격적 존재(천사들)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직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특별하다. 이 현현은 여전히 불완전 하다. 현현은 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른다.

(2) 예언과 영감은 계시의 또 다른 방면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 각 안에서 그의 생각을 교류한다. 이 말은 청중의 소리일 수 있고 꿈, 환상, 제비 를 던짐으로 얻는 결과(우림과 둠뭉)일 수 있다. 다시 형식상 중대한 차이를 가져도 이들은 비성경적 종교의 기능과 유사하다. 성령의 조명으로 나타난다. 헬라의 예언자와 달리 성경의 계시 수납자는 왕성한 의식 상태에서 일했다. 더욱이 선지자에게 일어난 계시는 환영과 달리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말에 대한 신약적 증거로 확실해진다.

구약 속의 성령은 한 인격 위에 순간적으로 임하고 그 선지자가 그의 나타남을 만든 신약으로 마쳐짐이 아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위하여 개인 신자 가 성령으로 무장함으로서 모든 신자의 보편적인 예언적 직무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은사로의 예언은 새 예루살렘의 나타남으로 나아간다.

기적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의 사역속에 나타내신다. 말씀과 사역은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이고 그의 활동은 언어이다. 하나 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일과 기적인 창조와 섭리속에 관찰된다. 자연의 보편적인 일과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일의 구분은 분명하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후자를 새롭게 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마지막 영광의 예상은

치료와 회복된 창조의 행위로서 예수에 의해 수행된 하나님 나라 사이의 능력 속에 보여진다. 기독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영적 기적으로 능력과 영광의 나타남으로 시작하셨다. 기적은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의 성취됨을 보였다.

하나님의 자계시는 부분적으로 나타남이 아니고 창조와 마침까지 유기적인 통합과 큰 이야기로 나타나며 모든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한다. 만물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타락한 인간은 이 계시를 부분적 혹은, 맹인이 되어 바라본다. 특별계시는 은혜로 공급됨이 필요 하다.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리신다. 그 계시는 역사적이고 수세기를 통해 발전하다가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쳐진다.

마침내 특별계시의 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다.

위에 언급한 두 은총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우리는 두 은총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바른 길을 나타냄을 보았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그는 일반 은총을 우상화하거나 특별은총을 자기 탐욕의 도구로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기도한다. 다시말하면 만일 구속에만 치우쳐 일반은총을 경멸한다면 이것은 그 복된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 일반은총 속에 구속이 있고 구속은 일반은총을 도구로 삼아 그 조화를 누리는 자리로 나가야한다.

6) 진화론에서 보여진 두 은총

또 다른 예는 2019년 11월에 시작된 코비드-19의 출현이다. 요사이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 절고로 나타난 변화는 엄청났다. 지독한 독감 정도로 보는 이 절고가 일년이상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 속에서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일반은총의 목적을 간파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썰기를 박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수 있어야한다. 둘째, 이 일로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주님의 구속은 일하심을 본다. 어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나 그 안에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으로 오는 그 나라의 조화를 교회의 좁은 길을 가는 동안 누리도록 약속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두 은총이 여기서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있다. 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에서도 일반은총의 가치는 더 귀하게 여겨졌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만지고 하는 일마다 일반은총과 관련된 일이 모두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험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은총은 어디로 갔는가? 여전히 그 은총은 살아 일한다. 우리는 어수선했던 속에서도 두 은총의 만남을 이해함으로 현재 있는 거기서 그 은혜를 누린다.

어떤 은혜인가?

1.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미국이서나 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일하신다. 이 구속의 목표인 두 은총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일하심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하셨다.
2. 이 속에서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증거되었다. 바이러스 전염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 별로 비상선언을 선포하나 속수무책이라서 의학과 전문가와 장치의 무력함을 보게하셨다.
3. 그리고 이 속에서 교회는 공적 예배의 모임을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를 따라야만하는 지경에 떨어졌다. 생사가 달린 일이기에 어느정도 타협 하는 자리에 떨어진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갈등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진정한 영적성장을 알게하셨다.
4.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정한 목적으로 나가게하셨다. 그 예로 필자는 캄보디아 선교현장에서 14 년간을 섬기면서 본래 교회 건축과는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은 이 기간 5 개의 교회 건물들을 짓게하셨다. 누가 돈을 주어서 캄보디아 목사들을 통해 완성였다.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스텐이 생겨 우리 선교부를 떠났지만 모든 일에

일반은총의 부요로서 그 일을 이루고 보니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의 시녀의 역할을 필요로 함을 보았다. 여전히 걱정은 이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관건이다. 다시말하면 사역 중에 건물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 바른 전도와 목회 사역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4 장.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

-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삶
- 두 은총의 만남의 오해가 가져온 생활
- 두 은총을 누리는 길

1.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삶

앞서 말한 혈만 바빙의 두 은총의 관계에 관한 견해를 5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모든 계시는 마침내 그리스도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성취된다. 2) 성경과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를 더 잘 보게하는 안경을 제공한다. 3)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연합한다. 일반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한다. 창조와 구속은 한 종말론적 찬양의 칸타타 안에서 연합된다. 4)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고 종교적 생활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잘 엮어져 있다. 5) 마침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위의 원리를 따라 생각할 때 두 은총의 만남은 어떻게 조화를 가져오는가? 성경은 두 은총의 조화 혹은, 연합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성실히 따를 때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스가라의 첫 이상 속에 붉은 말 탄 자인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 전 그리스도께서 깊은 화석류나무 숲 속에서 나오고

세종류의 말들이 따르는 것을 통해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 속에 영원한 승리를 보여준 것 같다. (계시록 6:1-2 에 첫째 인을 뿔때의백마 탄자의 손에 활 과 면류관을 들고 계속 싸우려는 모습은 두 은총이 구속으로 완성됨을 강조 하는 이상이다. 붉은 말은 의를 세우려는 것을 강조했다면 그 의를 온 세상에 적용하여 완전한 승리 곧 두 은총의 조화의 절대 누림을 강조한 것 같다) 우리는 그 만남의 조화를 읊기, 시편 그리고 신약의 요한의 신학에서 (요 14-16 장의 주님의 고별설교) 그 증거들을 본다.

1. 읊기에 나타난 두 은총의 연합

읍기는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통해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시이다. 읊의 고통은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으로 나타났고 일반은총을 누림의 문제는 다시 특별은총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풀려진다. 그 때 하나님은 읊의 깨달음을 위하여 일반은총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신다. 이 두 은총의 조화는 하 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나가게 하신다. 여기서 우 리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 을 나타내려는 목적에 이름을 본다. 이 조화는 그리스도안에서만 통일된다.

그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변증이 그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목표를 두지만 실패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조화를 이루시는데 구속자의

오심으로만 가능해진다. 욥은 구속자의 오심을 바라고 그 분만이 소망임을 말한다.

아브라함시대로 추정되는 욥은 경건의 본이 되는 인물이다. (욥1;1-12) 후기 선지자 에스겔과 신약시대의 장로, 야고보는 욥을 본받으라고 한다. 어떤 점이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 경건한 인격을 본 받아야 한다. 2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했다. 그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이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공의와 공도를 행하는 인격을 욥에게서 보기 때문이다. 둘째, 작은 죄를 두려워한 인물이다. 자기 자녀들의 생일잔치에 마음에 지을 가능한 죄를 찾아 제사 드리는 경건의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 경건이 생활에 정착된 것이란 말이다. 셋째, 하나님도 인정하는 경건이었다.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다.(8)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은 욥과 같아야 한다. 성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경건이 두 은총의 만남을 인한 조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은총을 누리는 욥에게도 시험(욥1:13-25)이 찾아왔다. 갑자기 당한 일반은총의 무너짐은 그로하여금 그 균형을 잠시동안 상실할 수 있는 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도리어 이 두 은총의 조화를 흔들 수 없었다. 욥의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 면은 하나님이 연단하기위해 허락하는 것이고 다른 면은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 공존했다.

첫째, 소유물에 대한 시험. 네 차례의 긴급한 보고는 생각 만해도 아찔하다. 도둑이 와서 약탈했고, 벼락 맞아 죽고, 떼거리의 의도적 공격을 받았고, 열 자녀들이 잔치석에서 압사 당한 것이다. 연거푸 당한 시련, 곧 일반은총을 모두 상실하는 일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그 때 재를 무릅쓰고 내려앉아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잡는 길이 그가 피하는 최선의 길이였다. 두 은총을 누릴 줄 아는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셋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이 온전할 때 온전하다는 야고보의 말이 욥에게 해당된다. 불평과 원망하기 쉬운 입술을 지켜 감사와 찬송을 했으니까, 경건의 훈련이 그를 견고하게 만든 것이다. 두 은총을 잘 다룰 줄 아는 균형잡힌 경건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이 교회에 원하는 바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차 시험 (욥2:1-1-13) 에서도 욥의 경건은 또 한번 드러났다. 어떤 것인가? 첫째, 불치병에 걸렸다. 악창으로 온 몸의 가려움증이 극심했다. 소유물 시험보다 더 예민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욥은 일반은총의 손실을 탄식함이 아니고 재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아내가 경멸했다. 마귀는 아내를 통해 그를 찌른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아내마저 신앙의 순전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욥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같다”고 응수했다. 복도 받고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셋째, 친구들을 통한 공격이다. 세 친구가 소문 듣고 와 온갖 예의를 갖추며 권고가 욥의 고통을 더하

게 했다. 같이 금식하고 같이 있는 것이 위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권면이 도리어 큰 짐이 되었다. 어떤 시험 앞에도 살 수 있는 길은 주권을 인정하는데 있다. 이것이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의 세계인 것이다.

두 은총의 만남으로 오는 조화를 누림은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정리된다. (욥30:1-15) 욥은 자기 친구들의 상황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탄식한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자기의 경건만 못하며 그들의 경건 역시 욥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풀리지 않고 고생 구덩이에 떨어져있다. 이 때 욥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았다.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첫째, 11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힘을 토로했다. 연단을 거친 정금 같은 욥의 신앙은 수천 년이 지난 후 신약교회의 경건의 모델이며 경건의 기둥이 되었다. 허다한 증인에게 둘러싸인 복된 자였다. 둘째, 친구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있음을 믿었다.(1-11) 성을 파괴하고 군사들이 몰려오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본분을 잘 지키므로 하나님의 보호의 호주머니 속에서 참 위로를 받았다. 섭리의 신앙에 참 위로가 있다.

욥은 두 은총의 조화의 세계에서 큰 진리, 환난이 주는 복을 알게된다. (욥30:16-30) 욥이 당한 환난을 열거한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소망이 모두 무너진 상태(1), 뼈가 쭈시는 육체의 고통(2), 환자복 처럼 누추함(3) 그리고 티끌과 재에 앉아 기진맥진한 자리에 있었지만(4) 인생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배운 것이 복이었

다. 둘째, 기도응답이 없어 바람에 휘날리는 영적 방향, 검은 가죽과 열기로 타는 뼈만 남았으나 자신은 불쌍한 자를 도와주었던만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사실로 탄식하며 애곡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전적 무능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를 헛되이 다루지 않으셨고 그의 자상한 사랑의 손길로 정금처럼 빚어 가셨다.

그 연단 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마음이 정결한 삶 (욥31:1-23)이었다. 얼마나 정결했는가? 첫째, 그의 개인적 삶이 정결했다. 눈과 언약을 세워 허탄과 꾀함이 없었으며 공평한 저울로 자기 걸음과 마음과 손을 깨끗이 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극성이 있는 죄악을 이겼다.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없었다.(9) 둘째, 소자를 적극적으로 돌아보았다. 남종과 여종의 사정을 듣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 주었으며 부모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고아를 적극적으로 후대했다. 셋째,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했다. 이 경외심이 욥을 정결하게 만든 것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마5:8)

욥의 의의 수준 (욥31:24-40)은 어떠했는가? 욥은 과거의 부요를 회상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는 어떤 순전함이 있었는가? 첫째, 물질주의를 극복했으며 우상숭배를 금했으며 미워

하는 자의 멸망을 기원할 정도로 악을 싫어했다. 심지어 자기 하인들에게까지 그의 순전을 인정받았다. 둘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큰 무리를 향해 의를 주장했다. 소송자가 없을 정도로 걸음마다 의로 가득 찼다. 농경사회의 일터인 밭도 그의 의를 안다고 할 정도로 의의 사람이었다.

마치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바울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 탐욕주의를 경계하고, 이타주의의 삶을 살았으며, 모든 면에 일절 깨끗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는 높은 수준으로 사셨기에 누구에게든지 허물을 찾으라고 도전할 수 있으셨다. 욕을 순전하게 만든 고난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는 밤중에 노래하였다.(욥34:31-35:16) 두 은총의 조화속에 거하는 자는 이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역사 속의 교회는 무수한 고난의 밤을 맞는다. 영국의 퓨리탄, 프랑스의 위그노, 화란의 거지들 그리고 한국의 신사참배에 맞선 옥중 성도들은 모두 밤에 노래한 사람들이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역사도 세상 역사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중의 노래한 자들을 통해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 욕에 대한 엘리후의 말대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영혼의 밤, 건강의 밤, 시대의 밤, 환경의 밤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은 노래하게 된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찬미할 때 기적을 체험했다. 육체에 기적이 없어도 먼저 찬미할 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 성도가 겪는 칠후 같은 많은 밤은 값진 진리와 기도를 배울 수 있기에 정말 복되다.

이처럼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는 사람은 신구약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자이다. 읍이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자에게 더 완전히 더 순전하게 나타난다.

(2) 시편에 보여진 그 연합

그리고 읍에서 나타난 이 은총의 누림은 시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시편은 두 은총의 만남의 부요로 채워진 계시이다. 그 중 시편 1 편과 시편 19 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시편 1 편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화상을 제시함으로 복된 자라고 한다. 말씀묵상 곧, 계시의 묵상은 두 은총의 만남의 그 현장이다. 두 은총은 두 계시와 연합되어있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 녹아있는 두 은총의 실재는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되고 그 발견은 어떤 사유의 과정없이 직접 우리 영혼에 흡수되어 그 조화의 세계를 누리게 한다.

특히, 시편 19 편은 그 그림을 그려준다. 두 계시를 통해 창조와 구속의 조화를 다룬다. 그 조화는 창조 속에 보여진 일반계시가 구속 계시로 완성됨으로 나타난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나타남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시인은 일반계시의 중심인 일반은총을 특별계시의 중심인 특별은총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고 즐거워하고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보여준다.

먼저 1-6 절에서 시인은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들의 중심인 태양의 역할을 소개하며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는 운행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본 시인은 아주 신비롭게 생각한다. 언어도 없는데 서로 통하고 전달 장치도 없는데도 그 소식이 알려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생각하게 한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세계라고 말한다. 사실은 일반은총의 세계는 구속의 세계 못지 않게 신비스러워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불가능하다. 오직 특별계시의 빛으로 성령으로 알려지고 깨달아진다. 이처럼 두 은총의 세계를 읊기와 시편 속에서 살펴본 우리는 실제로 현실의 흐름 속에 필자가 고난 속에서의 경험의 세계를 생각함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의 강요에서 두 은총의 만남의 삶을 전제로 적절히 5 가지를 지목한다. 이것은 눅 7:39 에 근거를 둔 다섯 주제들 곧, 1) 겸손한 복종 2) 자아부인 3) 십자가 지는 삶 4) 현실의 참여 5) 장래의 소망의 삶으로 규정 한다.

이것이 두 은총의 만남에서 온 조화의 삶의 실상이다. 이 시대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이 따르기 위해 겸손한 복종과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어야한다. 이것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에서 누려지는 길이지 일반은총의 무대인 세상을 벗어나거나 신비스러운 초능력을 받아 누리는 마술사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울은 빈궁에나 풍부에 처할 일체

비결을 배운 자로 어디에 머물든지 그리스도 안의 자족하는 자로 살았다. 좁은 길을 걷는 교회는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 속에서 큰 부흥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창조가 있음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한다.(빌 4:)

2. 두 은총의 만남의 오해에 나타난 삶

이 두 은총의 만남을 오해할 때 오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물소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의 뚝부은과 짜라이 소수종족 들은 일반은총에 치우쳐 있고 특별은총에 무지한 상태이다. 그들은 일반은총을 신격화한다.우상화는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 사는 길은 특별 은총의 길을 여는 것이다. 복음화가 바로 그것이다.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을 사용하고 그것을 지배한할 때 두 은총의 연합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두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 1) 비성경적 인생관이 되어버린다. 불신자는 성경을 모르기에 영적 어두움에 살지라도 신자라할지라도 이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알지 못하면 비성 경적 인생 관 속에 치우친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린다. 외식주의는 진리를 떠나 외식주의는 미아처럼 방황한다.

2) 물량주의적 인생관이 되어버린다. 또한 성경을 모르는 인생은 마침내 일반은총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물량주의로 떨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것은 외식주의의 귀결이고 두 은총을 곡해하여 육주의로 떨어진 표현이다.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탐욕주의자가 되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을 알지 못하게된다. 이것은 어떤 자리에있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누가복음 17 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소출로 창고를 짓고 자기 영혼을 오랫동안 즐기게 할 것으로 착각했다. 일반은총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 는 사람은 그 노예가 되어 특별은총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자로 떨어진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재물이 뉘것이 되겠느냐?” ()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부요치 못한 자라는 평가는 두 은총의 조화에 무지한 자의 모습을 보였다.

3)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두 은총의 세계의 만남에 머물지 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려 혼란과 혼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주권주의의 은혜를 상실한 자는 자애주의자가 되어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4) 부정적 삶이 된다. 자기 중심적 삶은 육주의자가 되어 창조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모든 일에 조부라한 자기의 욕심에 사로 잡혀 창조적 삶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두 은총의 세계를

아는 자는 절망에서 소망을, 파괴에서 건설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진다. 이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두 은총의 주되심을 알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많은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대하 5:)를 부정적 시각으로 번영주의의 단골 메뉴로 생각할지라도 사실 그의 기도는 두 은총의 만남의 은혜를 안 자의 기도 였다. 고통으로 출생한 그의 정체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고통이란 일 반은총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거기서부터 여호와께 겸손히 기도한다. 그리고 가난으로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다. 그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는 그가 소원에 넘치는 결과를 경험하며 부정적 자리에서 창조적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두 은총의 만남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스룹바벨 앞의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하는 약속을 경험한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의 근본과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새로운 방면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이다. 기도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진정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아는 자의 것이다.

- 5) 인본주의적 삶을 살게된다. 또한 인간중심으로 기울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있다. 두 은총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의 가르침에서 세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육으로 기울일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됨을 염려했다. 두 은총의 만남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영혼의 부패성인 자아와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신본주의자 곧 주권주의자로 살아간다. 그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은 그 결과가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salks, flesh)을 제일 두려워한다. 이것은 모든 영 역에 적용되는 원수로서 교회 영적 전쟁의 제일의 대상이다.

위에 열거한대로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모르는 자는 선교현장에서도 우리를 슬프게한다. 예를 들면, 한때 서구선교사의 실패를 식민지 선교전략(clonolized mission stragty) 에 둔다. 선교지에 물질과 수고를 이용하여 그들을 자기의 그늘아래 거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발전 모습이 결국 인간적 목표에 도달함으로 추한 결과를 가져옴을 본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는 내 말 에 복종하는 종으로 살아야한다.” ” 너는 아무리 잘되어도 나보다 더 커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선교 활동 속에 선교자와 피 선교자 간에 발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현지인 지도자 역시 그런 서구식 식민지화 선교전략을 답습함은 매우 슬픈 일이다. 외지 선교사에게 얼마나 받으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머지로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도와준다. 또 그 도움을 받는 목사 역시 전도를 하되 그

전도사역지가 자기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원칙에서 적절히 일하고 본류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차단시킨다. 사실 그들이 잘되면 그 유익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에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하는 모습이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하는 원리가 적용되질 못한다. 이것은 결국 육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 시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일반은총을 육화시키는 경우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율타리아래 육의 나라를 세우는 자이다. 일반은총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그것으로 특별은총을 세우는 것이 된다면 더 아름다운 결과 곧,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은총의 만남으로 오는 조화의 삶을 누림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3. 두 은총을 누리는 길

우리는 길게 논한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는 삶의 이해의 역사적 흐름을 살핌으로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삶으로 정리하였다. 번장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는 삶을 성경적으로 살피는 순서가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말로 이것은 성경 중심한 삶, 곧,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의미를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생각한다.

1) 그리스도 안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별설교인 요한복음 14-16 장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짐을 앞두고 그의 12 제자들에게 행하신 담화 설교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1) 요 14:1-31 에서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 석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주고 받는 대화가 설교로 바뀌어짐을 관찰한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이 제자 들의 마음을 근심으로 채웠으나 주님은 도리어 떠나시는 그 목적을 그들이 알았 더라면 기뻐했어야만 할것이라 하셨다.(14:28, 16:7) 그들의 근심은 일상적 근심 이 아니라 진리 지식을 붙잡지 못한 자에게서 생기는 낙심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다.

헨드릭슨(Hendrickson)에 의하면 14 장에 위로의 조건 10 가지, 즉, 1) 성부와 성자를 계속 신뢰할 때 (1) 2)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심을 알 때. 3) 주님께서 다시 오사 그 곳에 주와 함께 있게 하심을 알 때 4) 주님이 떠나심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일임을 알 때 (4-11) 5)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알 때 (12-14) 6) 성령을 보내주심을 알 때 (15-17) 7)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알 때(18-24) 8) 다른 보혜사가 가르치심을 알 때 (25-26) 9)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심을 알 때 (27) 그리고 10) 주님이 떠나심을 충분히 이해하면 도리어 기뻐할 일(28)임을 알 때” 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첫째, 위로의 근본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다. 그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졌고 (출 15:26) 성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로 일케렸고 (눅 2:25) 성령은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위로의 영으로 나타난다. (겔 36:6) 고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요동하고 변화가 많아 과거에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 오늘날 믿을 수 없고 또 오늘 믿었던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 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위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다. (히 13:8) 40)

둘째, 성자의 사역이 위로가 된다.- 성도는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이루시는 절대적 구원이 바로 신자 자신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역시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성부의 구원계획은 먼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음은 성도들의 절대적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우발적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의도적 일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은 일 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의 떠나심은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 죽으심은 구약 수천 년 전부터 기다려 왔던 구원 계획을 근본적으로 성취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 개별적 구원역사의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인자가 들려야만 하리라(must) (요 23:14)”는 말씀을 하셨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일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고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밝히 알았더라면 그들 마음에 근심대신 감사, 슬픔대신 찬양, 그리고 공포대신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을 것이다.

세제, 성령님의 오심이 위로가 된다. - 주님의 떠나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주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익이 따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 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니라.” (14:12,13-14 절 참고) 이 말씀은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특별한 권위를 계승함으로 교회 를 세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기력한 제자들로 나 타나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주님의 강한 도구로 일하 셨다. 이는 주님이 떠나심은 그들을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구체적이고 개별적 역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가장 가까이 오신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강림은 제자다운 제자, 사도다운 사도가 되게 했다.

위에 언급된 위로는 두 은총의 만남의 상태를 가리킨다. 구속의 특별은총은 일반 은총과 비교될 수가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한다. 두 은총의 불연속성을 보인 것 이다. 진정한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풍성함은 천하의 모든 일반은총을 모두 합쳐도 비교될 수 없는 선물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이 끊어져 무수한 짐과 걱정이 눌렸어도 이것을 뛰어 넘은 위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일반은총의 세계와의 조화를 설명할 필 요가 없었다 도리에 그 제한성을 특별은총의 세계를 보이심으로 일반은총을 감싸고 있는 구속의 은혜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 절대성이 올 때 균형을 찾는 것과 같다. 성령은 두 은총을 연결시키는 주체자이시다.

2) 요 15:1-27 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의 근거인 진리지식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적 연합을 이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는 영적 연합 관계에 놓인다. 주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하셨다. 본문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1-8) 신자들끼리의 연합(9-17) 그리고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18-27)로 나누인다.

그리스도, 신자, 세상, 이 셋은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치중하고 이 세상을 무시할 때 신비주의로 치우치게 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면 세속주의로 흘러간다. 마침에 이 둘은 탈선의 자리에서 만난다. 이 삼각관계에 관한 교훈을 통해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나눔을 생각한다.

첫째,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1-8) - 주님이 베푸신 비유는 1-2 절에 요약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1-2)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 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일단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구원에 동참하였다.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외식자를 권징하는 원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도 외식의 죄를 범하지만 상습적인 외식은 범치 못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듯이 보이는 외식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본장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3 절에 나온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3) 여기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말이 중요하다. (요 3:16 참조) 이 말은 선택이 그 기본이고 그 결과로 나오는 순종이 그 실현이다. 외부 생활에서 만 근근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얕은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계약과 생명에서 움직이는 내면적인 경건을 뜻한다. 제자들은 ”이미 일러 준 말(복음)“로 구원받아 은혜에 참여하였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써의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진리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맺혀야 할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이고 (갈 5:22-23)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이다. 잠 11:30 에 말하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모으느니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 보다 귀하다고 하신 까닭은 그들이 세상
 문화를 거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여호와와 빛이 나타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잠 20:27)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등불이 되게
 하시는 운동 곧 전도운동을 기뻐하신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항상 열매를 맺히고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방법을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을 이룬
 신자가 항상 그 안에 머무는 일을 할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이 생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끝까지 구원해주신다는 핑계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생활은 구원받은 자가
 순종생활에 힘쓰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밖에 나가려고 하는 옛 성품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본문 7 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5)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했다.

혈만 바빙은 말하기를 “사람의 말은... 그 사람과 그 말과의 시간적 혹은 장소적 거리에 따라 효력의 다소가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과 함께 현림하시어 계신다. 그는 언제나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 ...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나 성령에게서 도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영감되었고 계속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관되며 능력있게 되는 것만큼 거기서 성취하며 전파되는 부분적 말씀 도 역시 그러하다.” 고 했다.

요일 5:14-15 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다. 두 은총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항상 교제하는 생활이다.

둘째, 신자와 신자의 연합 (9-17) -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은 신자와 신자와의 연합으로 이어진다. 이는 모든 신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6 에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교회를 가리킨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서로 동 떨어지듯이 보이지만 한 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교회의 모든 신자는 한 주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바울은 엡 4:13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신자끼리의 연합을 생각할 수 없다. 만약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이는 벌써 교회가 아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 간에 영적 연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는 교훈은 이 부분에 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이 생활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결론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생활”이다. 여기서 주님은 또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원리인 “순종생활”의 중요성을 밝히신다. 9-10 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순종 생활을 모델로 제시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 깊은 관계가 신자들이 이루어야 할 연합임을 배운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사랑의 생활은 율법이 목표한 생활이고 율법이 완성된 생활이다. (롬 13:10 마 23:23)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시 본래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낸다.(창 1:27)

세제, 세상과 신자와의 관계(18-27) -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간다. 이

때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1)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으로 죄가 들어 온 후 하나님의 진노아래 머물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자 마귀를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었다. (엡 2:1-3) 그 가운데서 교회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던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빼앗긴 마귀는 주님과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이유를 19 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요 1:11 에 “자기 땅에 오매 그를 영접지 않았고” 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가! 주님은 까닭 없이 핍박한 그들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교회를 까닭 없이 핍박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교회를 알 수 없기에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2)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그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들은 자신들의 핑계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최대의 사랑과 증거를 거절한 자가 받는 마땅한 심판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은총의 만남을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삶”으로 정리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구속 안에서 유기적인 조화를 가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안에서의 조화 혹은, 연합을 말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상태를 말함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고 적용적이다. 그리스도가 주이고 그리스도인은 종으로서의 주종관계, 언약의 절정, 군신관계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반은총의 위치는 여전히 특별은총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되어야하고 만일 특별은총이 그 주재권(Lordship)을 떠나면 이미 구속과 구속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반은총의 주시며 구속은총의 주이시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과 임재를 모든 관계에 친히 나타내신다.

세째. 계속 요한복음 16 장에 취급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인다.

1)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33) 2) 그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주도해 나가시는 다른 보혜사의 강림과 그 역사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연고 없이 핍박한다. 그 핍박 양상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상을 통해 핍박을 받음은 분명하다. 이 때 제자들이 당하는 환난의 양상은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 9:22)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교회를 까닭 없이 핍박한다. 이 핍박은 순전히 영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고 성령을 모를 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영적인 무지는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고 성부의 계획을 전혀 모르며 성령의 역사를 의식할 수 없게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 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느니라.” (고전 2: 14)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구속받은 자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해야한다.

둘째, 다른 보혜사의 오심- 까닭 없는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려고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1) 주님의 떠나심과 다른 보혜사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중, 성령의 강림은 주님의 완성된 구원사역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의 시작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부터 이 구원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강림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없었던 돌발적인

역사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의 성취이다.(행 2:16) (2) 성령의 교훈은 성부와 성자의 교훈과 동일하다.(1)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라고 13-15 절이 말해준다. 13-14 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가(성령이) 내(성자)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성자)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표현했고 곧이어 15 절에는 바로 성자의 이 교훈이 성부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 성령의 교훈은 성부와 성자의 교훈과 하나도 충돌됨이 없는 동일한 교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한대로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사역으로 집중된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다. 주님 자신이 심판자이며 동시에 구원자로 오신 사실과 성부 자신이 구원자요 심판자로 나타난 사실을 다시 말씀하셨다. 이와같이 성령께서도 성부 성자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꾼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단행하시는 사역자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위에 언급된 성령의 사역은 구속을 개인구원에 적용시키시고 선택받은 자의 활동무대인 일반은총에 적용하여 본래의 뜻을 이루게하신다. 그리스도안에서의 두 은총은 조화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하심을 보인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안 거하는 것이 두 은총의 만남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은총을 누리도록 약속하셨다. 주종관계,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와 같이 성령안에서의 하나이 됨으로
우리게한다는 약속이다.

요약하면, 요 15:5 절에서 우리는 두 은총의 조화를 보며 구속의
아이콘이 두 은총을 움직임을 알게되었다. 두 은총의 만남의 즐거움
오직 그리스 도 안에 거할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2) 사도 요한의 관점

주님의 가르침은 요삼 1:2 에 사도 요한이 보여준 그림에서 두
은총의 조화를 다시 발견한다. “ 내 영혼이 잘됨같이 접사가
잘되히요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노라” (요삼 2)

한국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으로 알려진 가르침의 근거인 이 구절 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을 누리는 성도의 본을 보이였다.

변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기울이게 하는 것은 본래의 사도의 목적이
아니다. 두 은총의 만 남에서 오는 조화를 안 요한이 교회는 두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있음을 간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은총의
조화속에서도 여전히 양극화의 현상은 일어나 사탄을 통하여 고난과
유혹이란 것으로 교회를 괴롭혔다. 요한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면서(요삼 1:9- 12) 일반은총을 잘못 사용한 디오드레베가
육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테베드리오처럼 그 조화를
올바로 사용하는 자로 살아 야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삶이다.

제 5 장 결론

두 은총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생각은 그릇된다. 서로 보완적이다. 우리는 일반은총을 떠나서 못산다. 그러나 특별은총이 없으면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 둘은 본래 한 은총이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이 둘은 구분되어 이해했다. 그러나 구속안에서 이 둘은 서로 만남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되어있다.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바라는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 두 은총을 누리는 자의 자화상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의상태이다. 그의 성품의 의인신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두 은총의 만남의 자리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 때문에 고민하지 일반 은총의 손실로 고민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라도 그 형상을 지킬 때 교회는 그 부요를 잃지 않는다.

바빙의 지적대로 일반은총이 최대로 겸손히 특별은총으로 섬길 때 가장 높아지나 그러나 가장 높은자세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가장 추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스도 안의 두 은총의 만남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만 연합되어져 오직 구속을 즐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자리에 영원히 머물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두 은총의 만남의 조화를 누리기 위해 남은 모든 방면의 구속화에 전도로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야한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한다.(막 16:15)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의 무대이다. 그 무대에 사는 우리는 특별은총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한다. 이것이 창조와 구속과 언약의 절정에 해당되는 삶이다. 캄보디아의 일반은총은 구속의 은총을 알 때 살아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피조물을 복음화해야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의 삶의 목표이다. 하나님의 의인신을 보여야한다. 이것을 향해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아가 복음을 통해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 두 은총의 만남을 즐기며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려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지적처럼 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힘쓰는 참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세상에서 자족할 줄 알며 현실에 신실히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실 영원한 그 나라, 두 은총의 만남으로 완성될 조화를 누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 (끝)

